



책읽는꿈은 우리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잇는 어린이 책을 만들어 갑니다.



주소 서울시 마포구 성지1길 43
전화 02-332-2672~3 팩스 02-338-2672
홈페이지 www.bearbooks.co.kr
SNS Instagram @bearbooks_publish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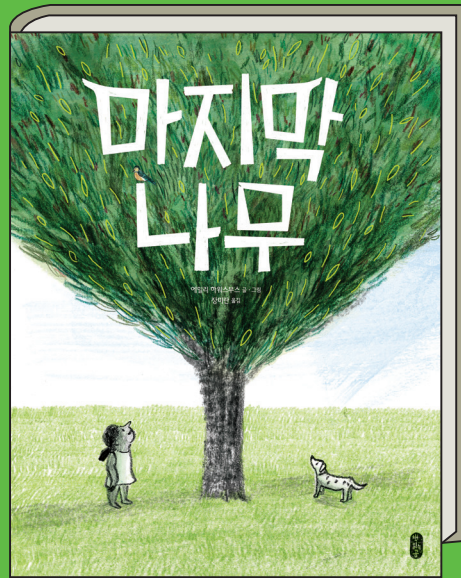
The Last Tree, First published by Pavilion Books in 2020, Text and Illustration Copyright © Emily Haworth-Booth, 2020



책놀이책



철학적인 이야기와 재치 넘치는 그림으로 무장한 우리 시대의 이야기꾼, 에밀리 하워스부스의 그림책!



마지막 나무
★공존, 공동체, 자연

그들은 마지막 나무를 지켜 낼 수 있을까요?

옛날 옛날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살 곳을 찾아 떠돌아다녔어. 사막을 지나, 골짜기를 건너, 산을 넘어, 나무가 울창한 숲에 다다랐지. 여름내 나무는 그늘을 드리워 사람들의 쉼 곳을 만들어 주었어. 하지만 겨울이 되어 찬 바람이 불어오자, 사람들은 나무의 소중함을 잊고 말았지. 나무를 베어 내 불을 때고, 집을 짓고, 바람을 막아 줄 높은 장벽을 쌓았어. 그 많던 나무는 온데간데없고, 이제 작고 연약한 나무 한 그루만 남았는데…….



어둠을 금지한 임금님
★가짜뉴스, 시민불복종, 다양성

오늘부터 어둠을 금지한다! 권력과 여론 조작에 대한 날카로운 풍자



어둠을 무서워한 임금님은 ‘어둠은 나쁘다’는 소문을 퍼트렸어. 어둠 금지령이 내려진 왕국에서는 인공 태양이 밤낮으로 환히 빛났지. 사람들은 밤새 놀며 어둠이 물러간 걸 축하했어. 그러다 점점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생쥐 나라 고양이 국회 알리스 메리쿠르 글, 마산진 그림 | 이세진 옮김
★투표, 선거, 민주주의

어린이의 눈높이로 바라본 선거와 민주주의! 아이와 부모가 함께 읽는 우리 시대의 우화!

생쥐 나라 이야기 들려줄까? 생쥐 나라에서는 4년에 한 번씩 투표를 해서 나라를 이끌어 갈 우두머리를 뽑는데, 그런데 그 우두머리들이 죄다…… 투실투실 피둥피둥 살진 고양이러지 뭐야! 생쥐 나라를 고양이가 다스려도 괜찮은 걸까?



어쩌다 여왕님 다비드 칼리 글, 마르코 소마 그림 | 루시드 폴 옮김
★올바른 시민 의식

어째서 왕관을 찾은 개구리가 여왕님이 되는 거죠? 노래가 있는 평화로운 여름밤을 되찾기 위한 개구리들의 선택!

옛날 옛적, 어느 연못에 개구리들이 살았어요. 개구리들은 뽀뽀기도 하고, 잠자리와 장난도 치고, 개애굴 개굴 개애굴 노래도 부르며 즐거운 여름밤을 보냈지요. 그런데 연못에 작고 반짝이는 왕관이 떨어진 뒤로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모든 개구리들이 왕관을 차지한 개구리 여왕님과 신하들에게 파리를 잡아다 바치느라 쉴 틈이 없었거든요. 개구리들은 즐거운 여름밤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콩팥풀 삼총사 유승희 글, 윤봉선 그림
★정의, 또래 관계, 용기, 지혜

따로 있으면 약하지만 뭉치면 강하다! 나쁜 권력에 맞서 싸우는 정의로운 곤충 삼총사의 대활약!

특하면 친구들을 때리고, 물건을 빼앗고, 시험지를 베끼고…… 온갖 못된 짓을 일삼던 곤충반의 독재자 사마귀 앞에 풀무치가 나타났어요. 전학생 풀무치는 서로 똑같이 생긴 콩중이 팥중이와 함께 ‘콩팥풀 삼총사’를 이루고, 온갖 지혜와 용기를 짜내어 사마귀에게 당당히 맞서지요. 정의를 위해 앞장서서 싸우는 콩팥풀 삼총사와 마침내 힘을 내어 스스로 한 걸음 내딛는 곤충 친구들의 용기를 응원해 주세요!

그림책을 보기 전에

- 1) 《마지막 나무》라는 제목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왜 이런 제목을 붙였을까요?
- 2) 표지 그림을 보면 어떤 이야기가 떠오르나요?
- 3) 이 책을 만든 작가 이름은 무엇인가요? 이 작가가 만든 그림책을 전에도 본 적이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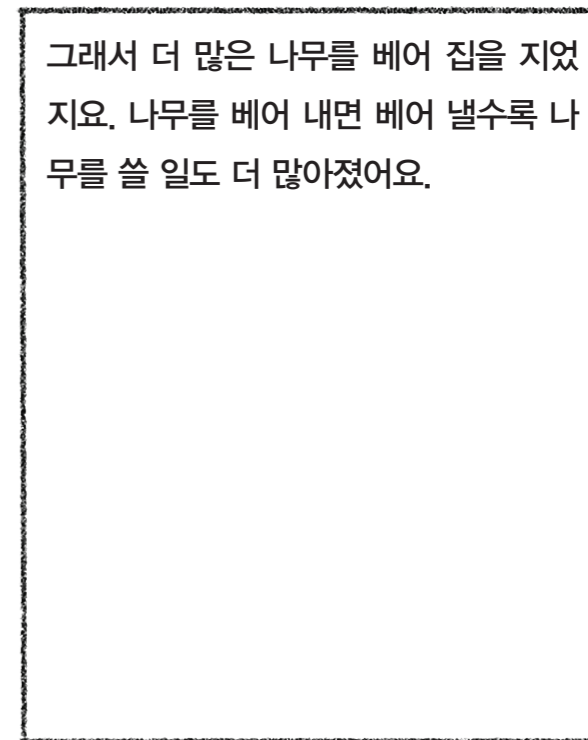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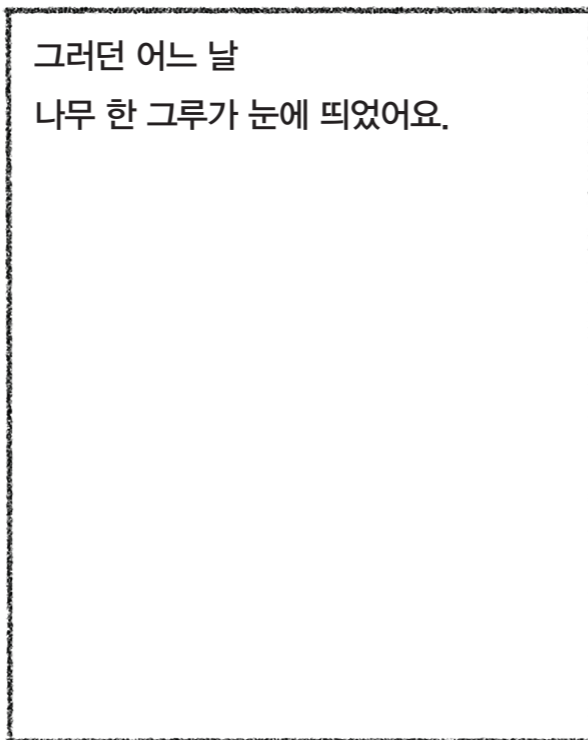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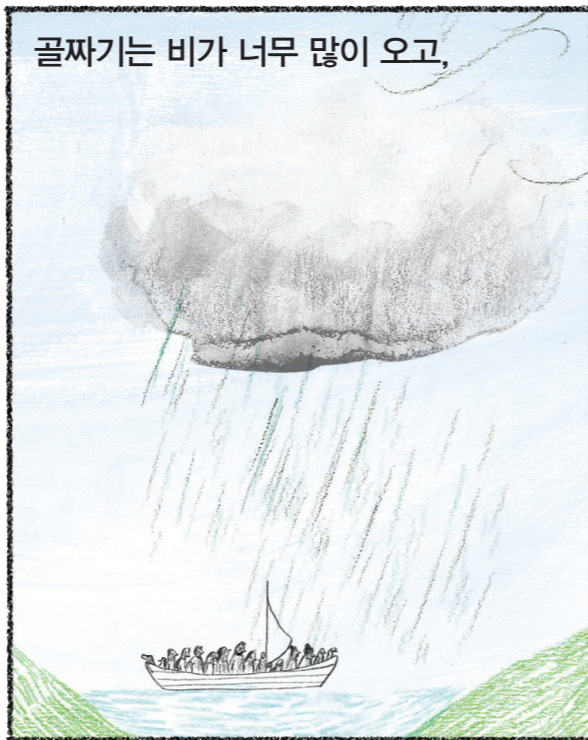
그림책을 보고 나서

- 1) 사람들은 왜 많은 나무를 베어 냈나요?
- 2) 사람들이 장벽을 세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 3) 아이들은 왜 마지막 나무를 베지 않았을까요?
- 4) 함께 장벽을 무너뜨리면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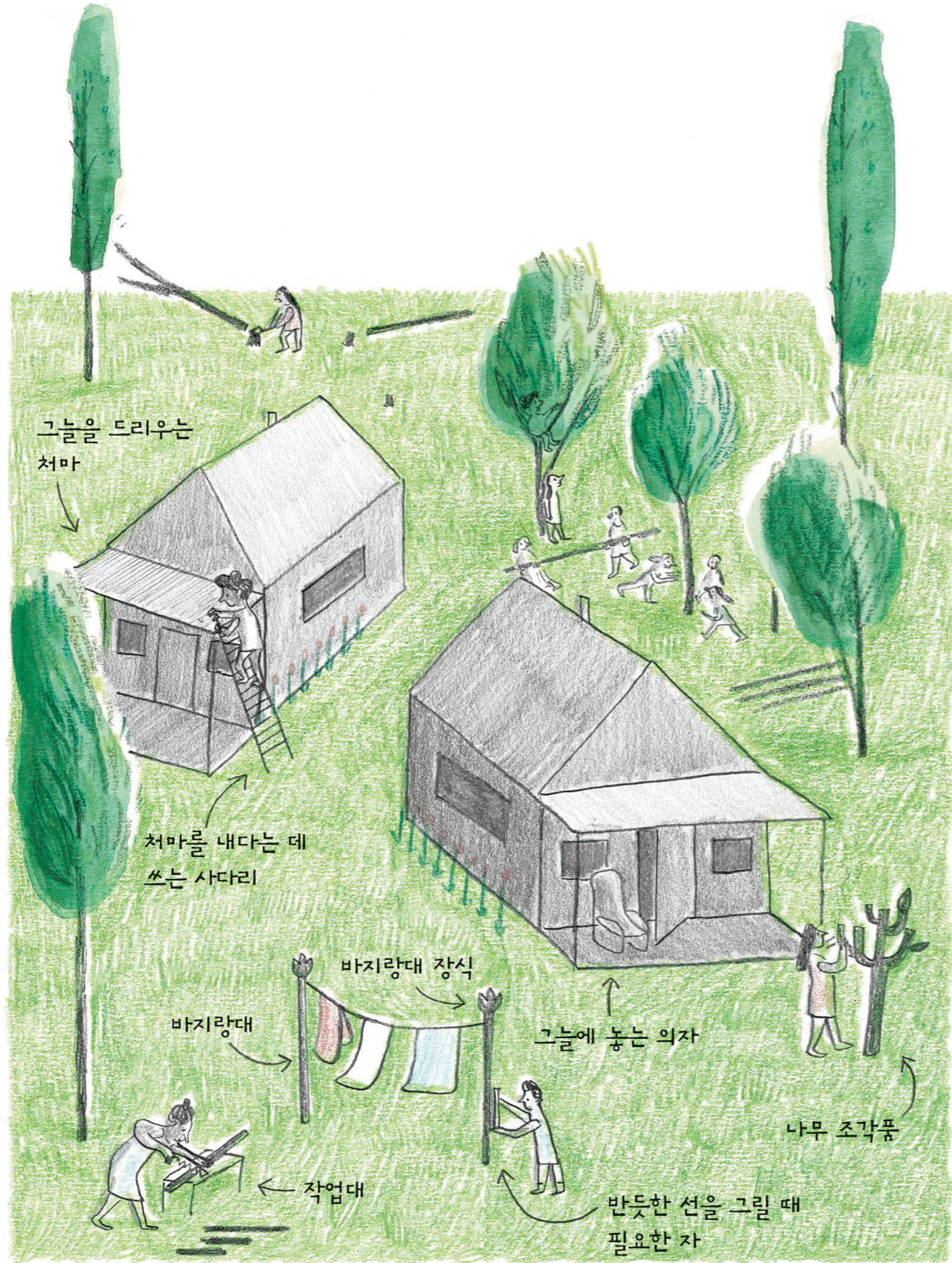


옛날 옛날에 한 무리의 친구들이 살 곳을 찾아다녔어요.






나무는 쓰임이 아주 다양해요. 여러분 주변에서 나무가 쓰인 곳이나, 나무로 만든 물건을 알아보을까요?



◆ 집에서 찾아보아요.

◆ 동네에서 찾아보아요.

한 걸음 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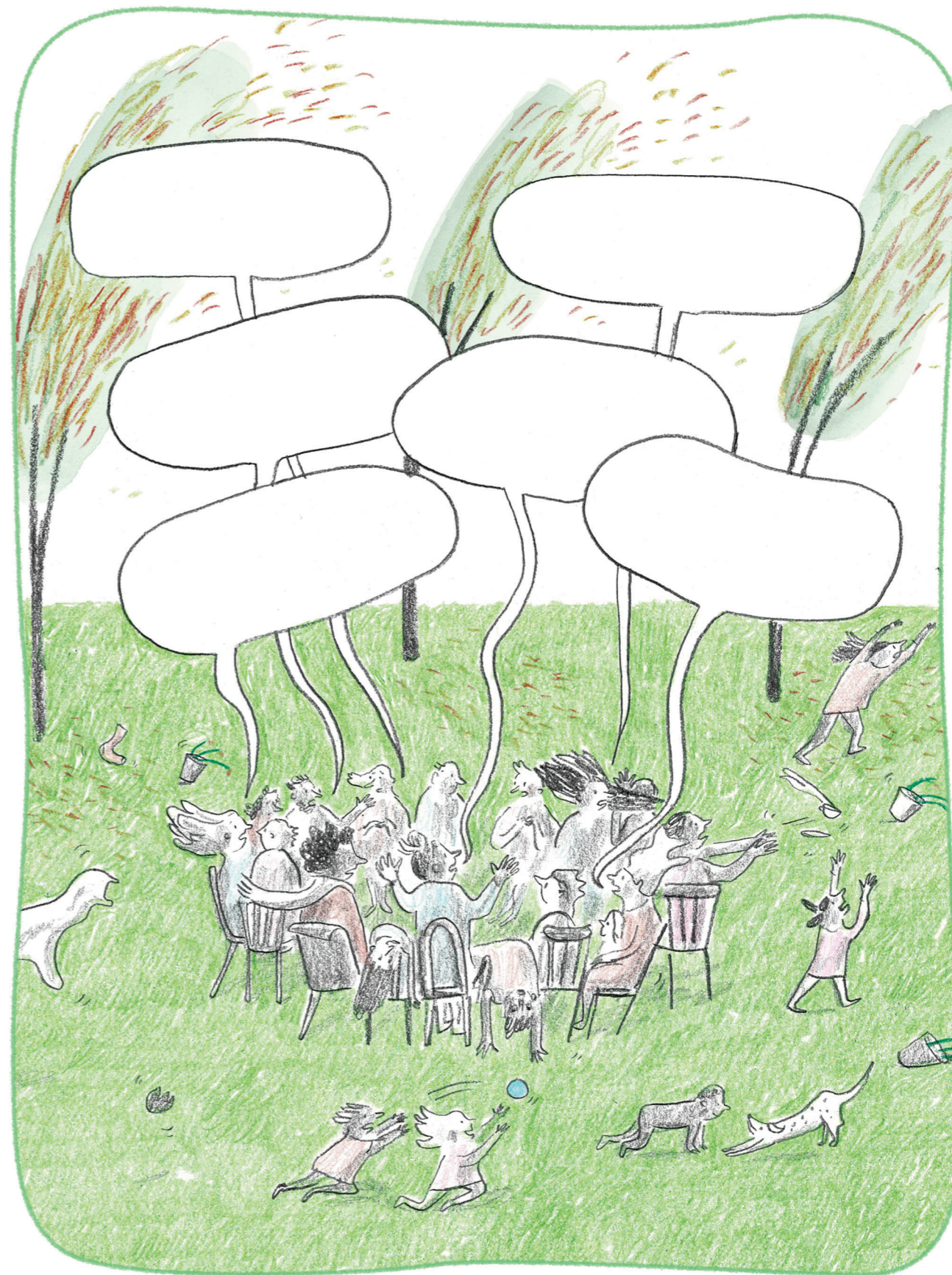
나무가 모두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바람을 막고,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한 좋은 방법은 없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한 방법을 오른쪽 말풍선에 적어 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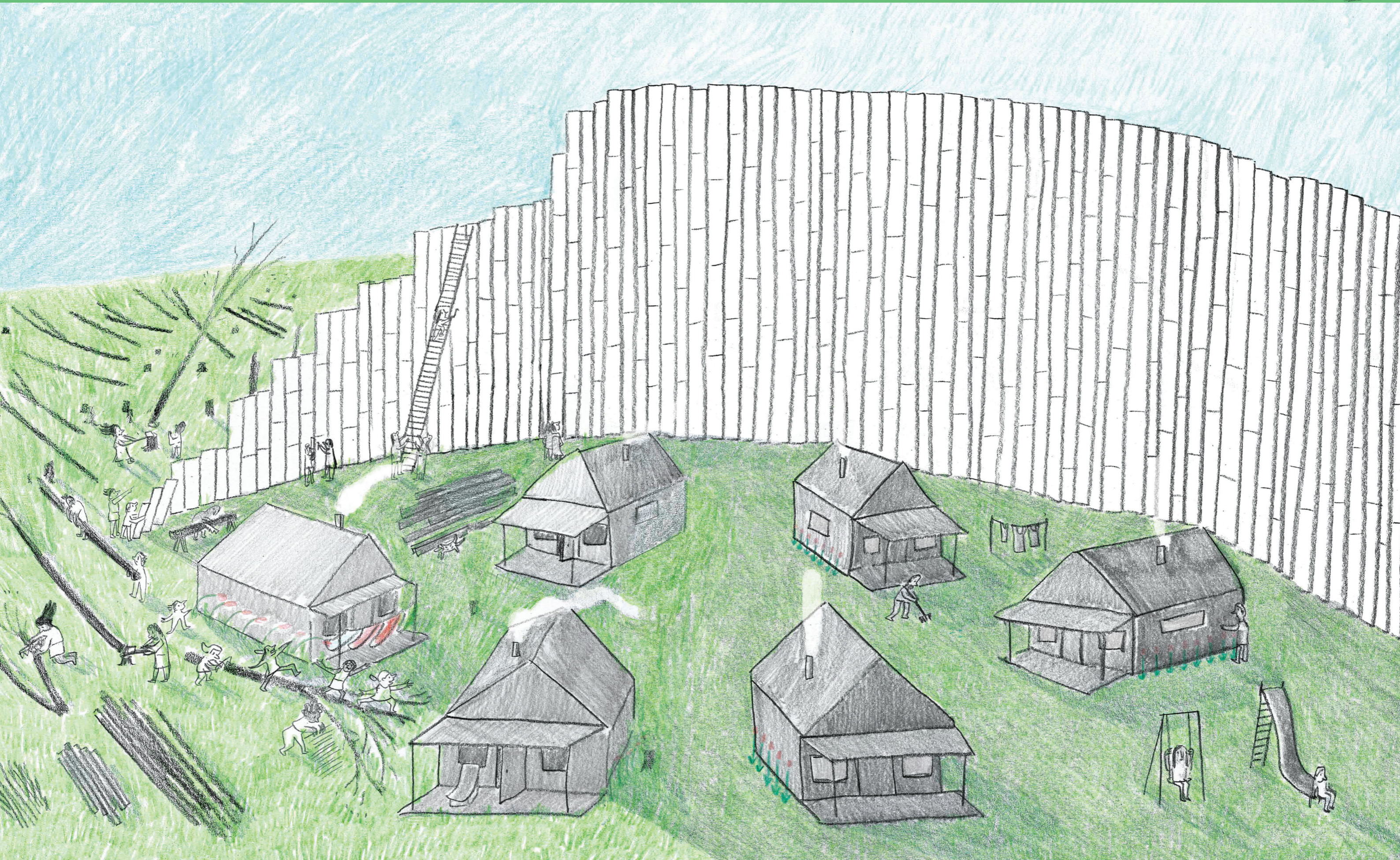


가을이 되자 다시 바람이 불어와
나무가 서 있던 자리를 휩쓸고 다녔어요.
마을 사람들이 만든 멋진 물건들도 이리저리 나뒹굴었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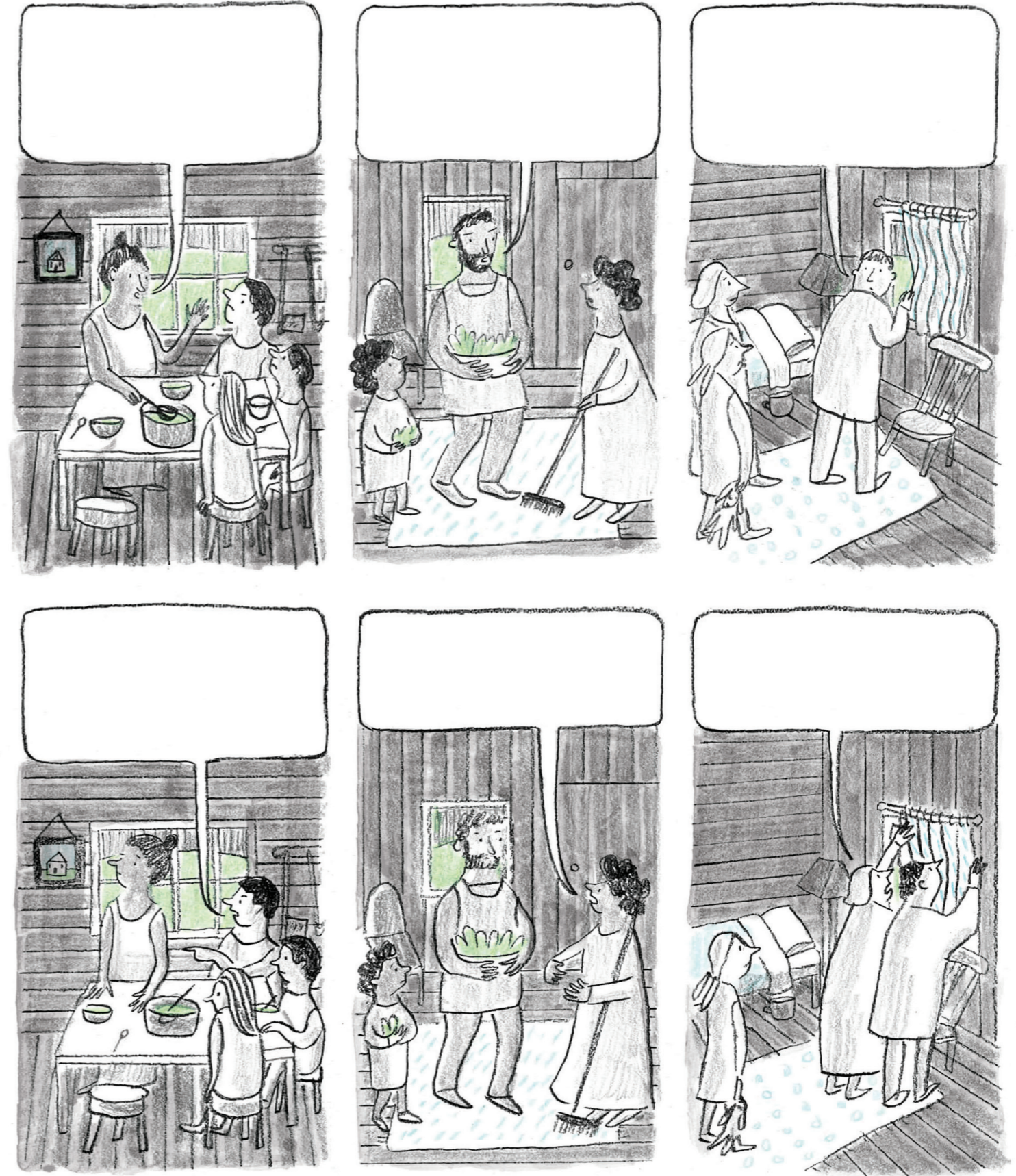


사람들이 만든 장벽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
삭막한 느낌이 들지 않도록 장벽에 색칠을 하거나 그림을 그려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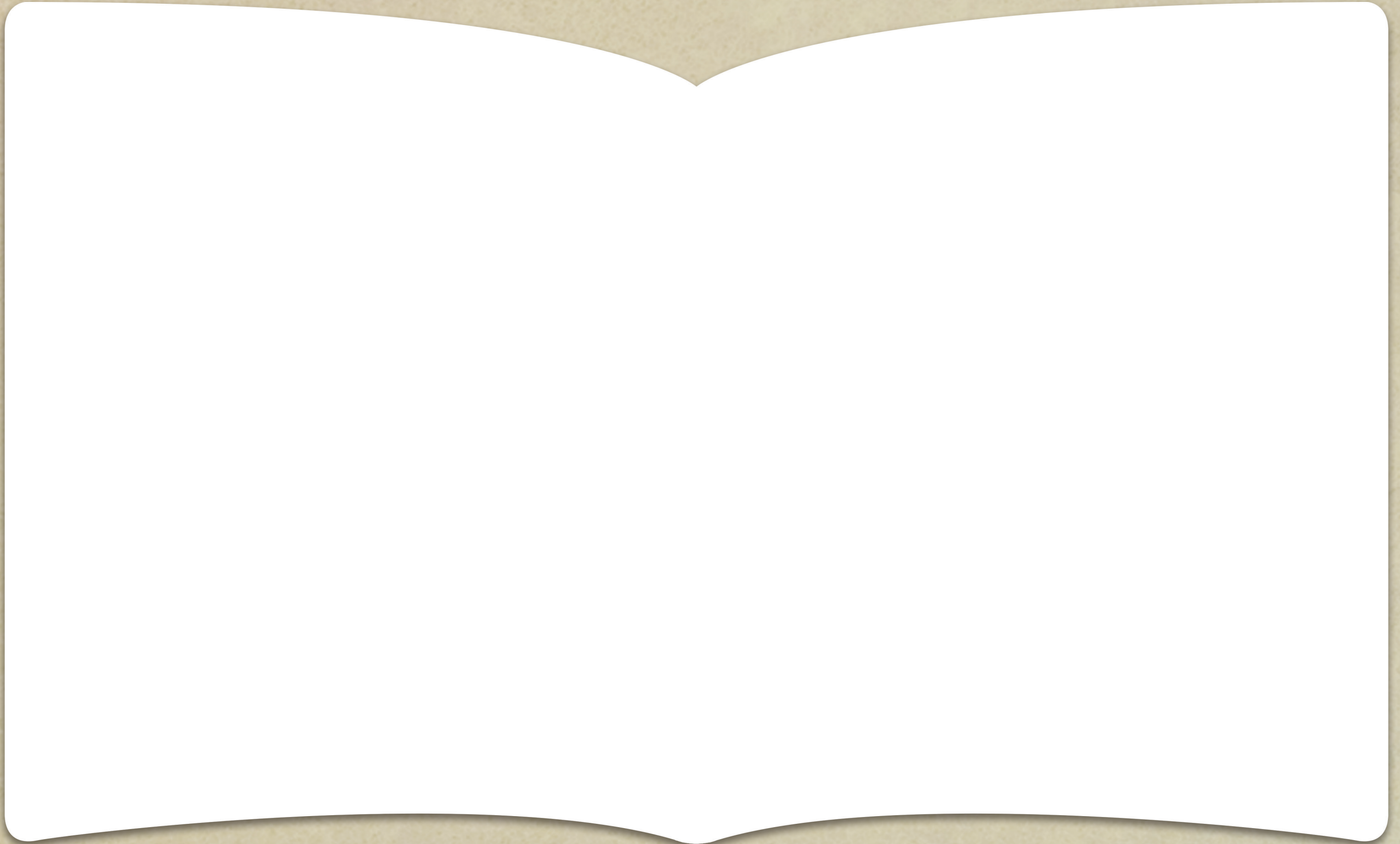
장벽을 허문 뒤 사람들의 대화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사람들이 나누었을 법한 대화를 상상해서 오른쪽 말풍선에 적어 볼까요?



책놀이 여섯!



만약 아이들이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 마지막 나무를 잘라 버렸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이 그림책 작가가 되어 다른 결말을 만들어 보세요.





아이들이 지켜 낸 마지막 나무를 떠올리면서,
'첫 번째 나무가 된 마지막 나무'를 만들어 볼까요?

입체 나무 만드는 법

1. 사각형 테두리의 '오리기' 선을 따라 오린다.
2. '바깥으로 접기' 선을 따라 접는다.
3. 세 장의 나무 그림을 합쳐서 한꺼번에 자른다. 이때 나무와 사람, 강아지를 제외한 하얀색 배경을 잘라낸다.
4. 모두 펼쳐서 각 나무 한가운데 있는 '안으로 접기' 선을 따라 접는다.
5. 뒷면의 '풀칠하기' 부분에 풀칠한다.
6. 병풍을 접듯이 지그재그로 접어서 풀칠한 뒷면을 이어 붙인다. 이때 같은 숫자끼리 만나도록 붙인다.
7. 세 갈래의 받침을 잘 펼쳐서 세우면 완성!



- 밖으로 접기
- 안으로 접기
- 오리기
- ////// 풀칠하기

